

No. 2013-14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4. 01

① 일본경제지표

② 주간경제이슈

: 아베노믹스의 성패 요인과 노사정 합의 구상

③ 경제정책동향

④ 일본기업동향

⑤ 한국관련위치

1 일본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 2012년 4/4분기 GDP성장률은 ▲0.4%로 3/4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고, 연간으로는 2.0% 기록
-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2013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
- 2012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7조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1월에는 월간으로 사상 최대인 1.6조엔 적자, 2월에도 7,775억엔 적자로 8개월 연속 적자 행진
 - * 2012년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16.7천억엔으로 축소
- 2012년 경상수지는 4.7조엔으로 2011년보다 흑자폭이 대폭 축소
- 2013년 3월 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94.8엔, 4월 1일 기준 94.3엔

구분	2011	2012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2.0)	0.2		
수 출(천억엔)	653	(637)	51	50	53	48	5.3	...
수 입(천억엔)	697	(707)	57	59	59	64	6.1	...
對한국 수출	52.1	(49.1)	3.94	3.93	4.35	4.01	4.25	...
對한국 수입	32.9	(32.4)	2.70	2.82	2.84	3.12	2.92	...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339			...		
對한국 투자	(24)	(40)	9.4			...		
소비자물가(%)	0.0	(0.0)	0.0	▲0.3	▲0.1	▲0.3	0.1	...
실업율(%)	4.5	(4.4)	4.2	4.2	4.3	4.2	4.3	...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3.8	▲2.2	▲2.6	▲3.6
엔화 對미달러	79.1	(80.1)	79	80.9	83.6	89.2	93.2	94.8
환율 對원화	(1,391)	(1,413)	1,401	1,344	1,288	1,197	1,166	...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7	12.7	12.7	12.7	12.7	12.6	...
은행대출금리(%)	1.48	...	1.38	1.38	1.36	1.36	1.35	...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연구보고서

- 『엔저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 산업평균 균형 환율에서의 시사』
미즈호종합연구소, 3월26일
*출처:<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jp130322.pdf>
- 『국제지재권제도연구회보고서 : TRIPS협정의 정합성 분석조사보고서』 일본특허청, 3월23일
*출처: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uu/toushin/chousa/trips_chousa_houkoku.htm

② 주간경제이슈 : 아베노믹스의 성패 요인과 노사정 합의 구상

□ 아베노믹스의 성패 시나리오와 요인

- 아베노믹스가 기대하고 있는 성공 시나리오는 3개의 화살로 일컬어지고 있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이 ‘개인소비 증가→ 수요확대→ 설비투자증가→ 생산 확대→ 기업수익개선→ 임금상승→ 개인소비 증가’의 경기 선순환을 가져오는 경우임
- 반면, 아베노믹스의 실패 시나리오는 ‘개인소비 부진→수요 위축→설비투자 감소→생산 감소→기업수익 악화→임금상승 실패→개인소비 부진’의 디플레이트 스파이럴을 가져오는 경우로 아베노믹스의 리스크로 볼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임금임
 - 일단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목표 물가 상승을 2%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을 흡수할 만큼의 임금상승(3%정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임

□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정 협정 구상

- 디플레이트 탈피의 관건인 임금상승을 위해 일본 정부, 경제계, 노동조합 등이 3자 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이 부상
 - 먼저 기업이 임금인상을 촉진하고, 정부는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및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실시
 - 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에 동의, 일시적인 실업을 수용
- 무엇보다도 일본정부 내에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핵심으로서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민간의원들이 노사정 합의를 제안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 일본정부는 6월에 예정된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골격’에 노사정 합의를 담을 가능성도 있음
 -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재취업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종업원의 해고를 인정하는 해고규정의 재검토와 근무지나 직종을 제한한 정규와 비정규 중간적인 고용형태 도입을 논의 중
 - * 임금인상을 확약하는 대신, 이와 같은 노동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개혁 실시
- 그러나 정부, 기업, 노조가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음

- 특히, 일시적인 실업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와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정부의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책투자은행과 협력하여 임금인상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채산 부문의 정리나 비거래 상태에 있는 기술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음
-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이나 직업훈련에 의한 지원의 발판마련도 검토과제
-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구상은 1982년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왓세나 합의’의 일본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실업을 악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법인세 감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확보, 노동자가 임금억제를 각각 수용한 바가 있음

□ 임금인상으로 중간소득층 복원과 기업의 사업재편 등 일석이조 효과

- 임금인상이 확산되면 내수가 자극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정부가 비채산 부문의 정리를 지원하여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면 기업도 임금인상 여력 확보에도 이어짐
-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노사정 합의에 의해, 임금인상을 통한 중간소득층 회복과 기업의 사업재편 쌍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③ 경제정책동향

□ 경제산업성, 태양전지에 내구성 기준 도입

- 경제산업성이 태양전지에 대한 내구성 기준을 신설할 계획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발전능력에 일정 기준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일본공업 규격(JIS)으로 도입 예정
-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품질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임
 - 구체적으로는 고전압 부하상태에서 태양전지가 비바람에 쏘이게 되면 급격히 출력이 저하되어 발전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출력 저하의 원인은 태양전지의 내구성 부족에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중국 등 일부 신흥국들의 제품에는 비용절감에 급급한 나머지, 불충분한 기능으로 시장에 출하되는 제품이 있다는 것
 - 이에 비하여 파나소닉, 교세라 등 일본 국내 주요 업체들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지적
- 경산성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내구성 기준을 설정, 고온다습한 사무실 등에서 태양전지를 일정시간 두고 발전능력이 악화되는가를 확인
 -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경우에는 기밀성이 높고, 떨어지기 어려운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신흥국제품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성능이 확인되면 업체들은 JIS 적합제품으로서 일본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음
 - 기준 도입으로 내구성이 높은 일본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수입품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입품과 일본제품 간 기준에 차이는 두지 않기로 함
- 최근 중국기업인 선택이 파산되는 등, 국제적으로 비용절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산성의 규격도입은 품질을 도외시한 글로벌 가격경쟁을 피하고 일본 국내 태양전지의 품질유지에 목적을 둔 것임

4 일본기업동향

□ 도요타자동차, 부품의 표준화를 30%로 원가절감과 상품력 강화

- 도요타자동차가 부품표준화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설계방법인 「도요타·뉴·글로벌·아키텍처(TNGA)」를 사용한 신형차를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발매한다고 발표
 - 1차로 신형 프리우스 등이 대상, 부품표준화로 개발효율을 20~30%개선시키는 것 외에도 엔진과 트랜스미션 개발도 강화
 - 원가절감과 상품력 강화를 양립시켜,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양산할 계획
- 먼저 기초구조인 플랫폼(차대)은 부품표준화가 용이한 3종류의 차대를 개발. 각 차대를 사용하여 여러 차종을 개발, 전체 생산대수의 50%를 커버
 - 그 과정에서 4,000~5,000개 품목의 부품 중 20~30%를 표준화, 궁극적으로는 70~80%로 확대하는 구상

<TNGA의 주요 내용>

조직	기술에서 중장기 제품전략을 입안하는 TNGA기획부를 4월1일부로 설치
상품력 향상	신형 플랫폼을 개발, 2015년 발매예정인 신형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개발효율화	중장기 제품라인업을 구축, 여러 차종을 동시 개발, 부품표준화로 개발 효율을 20~30% 향상
생산혁신	조달·생산·기술 각 부문이 부품구입처와 연대하여 제조공정을 단순화
부품조달	차종·지역·상품화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일괄발주로 비용절감

-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개발에 집중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품질도 향상
 - TNGA를 통하여 절감한 비용을 차세대 환경차 개발이나 디자인 강화에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상품개발 사이클을 창출
- 엔진 및 트랜스미션도 표준화나 제품력 강화를 추진, 최근 완성된 아이치현 토요타시의 파워트레인 공동개발동에는 엔진 등의 연구개발이나 생산기술 기능을 집약,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
- 한편, 부품회사에는 차종,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량의 부품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체제를 구축
 - 이미 부품회사들은 부품 종류의 삭감에 대처하고 있는데,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부품의 개발이나 글로벌 공급체제 구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5 한국관련워치

□ 스미토모화학, 한국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320억 투자

- 스미토모화학이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생산량을 3배로 늘릴 계획
 - 삼성그룹의 증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320억엔을 투자, 한국공장의 설비를 증강시킬 계획
- 스마트폰시장을 견인해 온 애플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소재·전자부품 기업들이 삼성과의 거래확대에 주력할 움직임이 확산
- 스미토모화학의 터치패널사업은 2012년 매출액이 100억~15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의 절반 정도를 스미토모화학의 터치패널을 탑재하고 있는데, 현재 15%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스미토모화학이 생산하는 터치패널의 세계시장점유율과 매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스미토모화학은 작년 5월 평택시에 터치패널공장을 신설, 투자액은 190억 엔으로 현재는 전량을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음
- 신규 공장은 작년 여름 이후 완전가동 상태에 있음
 - 현재 약 40억엔을 투자, 생산능력을 70% 확대하는 설비개조공사를 실시중이며 6월말부터 증산체제가 정비
 - 그러나 이 정도로는 삼성이 요구하는 공급량에 대응할 수 없어 약 280억을 추가 투자하여 생산라인을 신설, 연말에는 현재의 3~4배의 증산이 가능하게 될 전망
-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수위를 굳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기업의 이른바 삼성시프트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닛케이신문이 보도

□ 베트남에서 마루베니의 전력판매 사업에 한국기업이 설비공급

- 마루베니가 베트남에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에 참여할 예정
 - 발전용량은 120만kw로 베트남 최대급이며 총사업비는 약 25억 달러
 - 한전(KEPCO)과 공동으로 2018년 전력판매를 개시할 예정

- * 베트남 최초가 될 고효율 초임계 석탄화력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연율 15%전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전력수요에 대응
- 마루베니는 최근 베트남전력공사(EVN)로부터 전력판매사업의 우선교섭권 획득
 - 베트남 독립계발전사업(IPP)에 KEPKO와 50%씩 출자하여 EVN과 25년간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체결
- 2013년 후반에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2014년 착공
 - 국제협력은행(JBIC)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융자도 검토
- 건설 예정지는 베트남 북부 타인호아성 기손지구로 고온·고압의 증기로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초임계 석탄화력발전설비를 2기 도입할 예정
 - 한국 두산중공업이 건설을 맡아 터빈 등의 주요 발전설비를 납품
- 마루베니는 연료인 석탄을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계획임
 - 그동안 연료용 석탄을 국내에서 조달해 온 베트남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임